빅터 차(Victor D. Cha)의 대북정책론 일고

장 원 석*

목 차

Ⅰ. 머리말
Ⅱ. 북한정권의 행태 분석: 더블 오어 낫씽(double or nothing) 이론
Ⅲ. 공세적 포용정책(Hawk Engagement)의 제안
Ⅳ. 2002/2003년의 북핵사태 분석
Ⅴ. 한·미·일 동맹체제와 새로운 정체성의 구축
Ⅵ. 맺는 말

Ⅰ. 머리말

"북한전문가들을 한방에 모아 놓고 어떻게 작금의 사태에 대처하면 좋을지 토론을 벌이도록 해보자. 아마 좀처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미디어 관련자가 여기에 가세한다면 논쟁은 더욱 위태로운 상황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런 와중에서 빅터 차와 데이비드 강은 포용정책과 봉쇄정책의 비용과 편익을 솔직하고 객관성 있게 분석하고 북한 핵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실제적이며 실행가능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1].

빅터 차는 조지 타운 대학교 에드먼드 왈쉬 스쿨(Edmund A. Walsh School) 정부학과 부교수로서 근래에 들어 주목할만한 소장파 재미학자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이다. 2003년 그는 다트머스대학 정부학과 부교수인 데이비드 강과 공동으로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찬반논쟁을 주제로 한 저서를 집필하였다[2]. 이

* 제주대학교 법정대학 정치외교학과 교수

1) Jeffrey Miller, "Sound Logic for Dealing With N. Korea," Book Review, *The Korea Times* (November 15, 2003).

책은 양자가 각각 어느 한편의 입장을 택해서 공격과 수비를 행하는 독특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필자들은 서두에서 이 책이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려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지식을 취합하고 합리적으로 추론하여 최고의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한다. 이 글은 빅터 차의 시각에 초점을 맞추어 그의 논리를 살펴보려 한다.

빅터 차의 문제 제기는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한반도 정세가 급격한 변화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는 너무나 안일하게 이에 대처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의 국익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안정과 평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도 불행한 사태이다. 보다 적극적이며 합리적인 한반도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문연구자가 아닌 저널리스트나 석학임을 자처하는 몇몇 인사들에 의해서 정책논쟁이 벌어지는 작금의 분위기는 지양되어야 한다.

> "짤막한 사설과 독자투고, 2페이지 분량의 싱크탱크 보고서 같은 것들이 북한에 대한 논쟁을 주도하고 있는데 그것들은 정치적, 이념적인 동기를 갖고 있으며 한번 읽으면 잊혀지는 내용들이다."(p.8)

둘째, 기존의 북한 연구를 살펴보면 일부 훌륭한 성과물도 있지만 북한의 전략과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개념적 엄격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 빅터 차는 여기서 지역연구가 단순한 해당지역의 언어구사능력이나 단편적인 지식의 축적에 의존하는 단계를 넘어서 사회과학적 방법론을 적용하는 수준으로 고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제 아시아/한반도 전문가들에게도 과거 소비에트 연구자들에게 요청되었던 학문적 평가의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때이다.

이 글은 빅토르 차의 논리를 4개 부분 - 북한정권의 행태예측, 유효한 대북전략, 2002/2003년 북한 핵사태 분석, 한미일 3각동맹과 동아시아의 평화 - 으로 정리하여 각각을 검토하고 마지막에 이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시도한다.

---

2) Victor D. Cha and David C. Kang, *Nuclear North Korea: A Debate on Engagement Strategi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3).

Ⅱ. 북한정권의 행태 분석: 더블 오어 낫씽 (double or nothing) 이론

빅터 차의 북한정권 행태 분석은 다음의 3가지 주장으로 요약된다. 첫째, 북한체제는 실질적으로 변한 것이 없다. 둘째, 북한체제는 와해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북한이 전면전을 시도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 셋째, 그러나 북한은 불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부분적인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많다. 이상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유화론자들은 부분적인 개방과 일련의 정상회담 등을 근거로 북한이 이미 체제개혁의 단계에 돌입하였으며 따라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햇볕정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빅터 차에 의하면 그것은 단기적인 전술과 숨겨진 의도를 구별하지 못하는 처사이다. 북한은 경제적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을 따름이지 혁명의 이념 자체를 포기한 것이 아니며 북한의 가치체계는 변한 것이 없다. 앞으로 여건이 호전되는 경우 찰스 암스트롱(Chaeles Armstrong)이 말하는 소위 북한의 혁명 신학은 다시 한번 소생할 것이다.(p.83) 빅터 차는 북한정권의 진의를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행태주의적인 관점에서 볼 때 내면의 세계는 외부적인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법이다. 북한의 저명한 학자들의 주장을 살펴보자. 그들은 아직도 한국을 미국의 괴뢰정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남한의 민중과 연대하여 통일을 성취할 것이라 장담하고 있다.

빅터 차는 북한의 평화제의가 하나의 제스추어에 불과하다고 본다. 북한은 6·25 전야에도 평화협정을 제안한 바 있으며, 최근에 공개된 동독의 문서에 의하면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천명했던 1972년의 남북공동성명은 미군철수를 강요하고 일본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한 전술에 불과하였다. 빅터 차는 2002년 김정일과 고이즈미의 정상회담 역시 일본으로부터 추가적인 식량지원을 받아내기 위한 북한측의 전술일 뿐이라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빅터 차에 의하면 북한정부는 결코 본격적인 체제개혁을 추진할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만일 북한이 체제개혁을 강행할 경우 그것은 단기적으로 성과를 거둘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동독이나 루마니아의 사태가 말해주듯이 저항세력을 양산

하여 체제의 붕괴를 모면하기 힘들 것이다. 북한정부는 이러한 딜레마를 잘 알고 있으며 따라서 운신의 폭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빅터 차에 의하면 북한체제는 쉽게 붕괴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그동안 치명적인 위기에도 불구하고 체제의 생존능력을 과시한 바 있으며, 한국정부를 포함하여 주변국가 누구도 북한체제의 붕괴를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북한은 중국 및 국제기구 등 외부로부터 최소한의 식량과 에너지 원조를 지원받고 있으므로 생명선을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빅터 차는 북한이 전면전을 도발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본다. 그 이유는 첫째, 한미동맹군의 군사적 우위가 확실하고 유사시 미국의 개입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이다. 둘째, 중국이나 러시아 어느 편도 북한의 침공을 지원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전쟁이 발발할 경우 상당한 희생이 뒤따르겠지만 북한은 궤멸될 것이다. 빅터 차에 의하면 전쟁은 곧 북한체제의 종말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북한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은 무엇인가? 빅터 차는 국제관계의 의사결정 이론에 입각하여 북한의 국지적 공격 가능성을 예상한다. 시간이 누구의 편인가 하는 문제는 게임 당사자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현재의 상황을 지는 게임으로 인식하는 경우 당사자는 승리의 기약없이 선제적(peemtive) 혹은 예방적(preventive) 공격을 취할 수 있다. 그것은 이익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손실을 저지하기 위해 취하는 선택이다. 속수무책으로 출혈을 감수하는 대신 마지막 모험을 시도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일 수 있다. 도박의 경우 승기를 잡은 자는 안전한 방책을 선호하지만 자금을 거의 날린 사람은 마지막 베팅에 승부를 거는 법이며,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환자 역시 최후의 시도를 거부하지 않는다.(p.26.72)

빅터 차는 '더블 오어 낫씽' 이론을 북한의 상황에 적용시킨다. 그는 북한 정권이 절망적으로 현실을 인식을 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1970년대까지 북한은 남한과 비슷한 수준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유지하였으며 따라서 자신감을 갖고 남한의 정치상황을 주시하였다. 돈 오버도퍼(Don Oberdorfer)에 의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살해되었을 때도 북한은 계속 관조하는 자세를 취했는데 그것은 남한체제의 궁극적인 붕괴를 자신했기 때문이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 북한은 보다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군의 기계화를 추진하고 포병을 보완하며 편제를 군단 위주의 공격적인 조직으로 재편한 후 전방 배치를 강화시켰

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 심각한 식량위기와 에너지 부족으로 북한의 군사력은 급속도로 약화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특수부대와 전방배치 포병, 대량살상무기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p.79) 경제적인 위기와 식량난은 아직도 종료된 상황이 아니며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예전의 후원자가 아니다. 9·11 이후 외부의 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데 그것은 서방세계로부터의 압력이 가중되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보이는 무관심에서 기인한다.(p.75) 9·11 테러 이후 서방세계와 국제기구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사태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북한에 대한 원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북일관계 역시 좀처럼 호전되지 않고 있어서 일본으로부터의 지원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한국정부도 김대중 정부의 퍼주기식 지원에 대한 비난 여론에 직면해 있다. 햇볕정책에 의해서 성사된 남북의 밀월관계도 언제까지나 지속되리라는 보장이 없다. 분단 이후 한반도의 역사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 따라서 북한은 황장엽이 판단하고 있는 것처럼 절망적인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많다.(p.32) 그것은 전면적인 전쟁의 수준에 이르지는 않지만 한반도와 주변국가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다.

빅터 차가 예상하는 구체적인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북한은 대포유탄을 남부의 도시로 쏘아 올려 주민들 사이에 혼란을 유발시킨다. 혹은 파키스탄 방식의 핵실험을 행한 후 공식적으로 핵보유를 선언한다. 화학물질을 탑재한 단거리 혹은 장거리 미사일을 남부의 항구나 일본에 발사한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는 외국자본의 철수 소동이 발생하고 증시가 폭락할 것이다. 방사성 물질을 방출하는 '더러운 폭탄'(dirty bomb)을 휴대한 수명의 테러리스트를 한국의 주요 도시(서울, 부산, 광주)에 침투시켜 한국정부와 담판을 전개할 수도 있다.(p.34) 모든 공격은 비미국인을 표적으로 하는 치밀한 계획이 될 것이다.

빅터 차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군의 휴전선 전진배치를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본다. 그것은 선제공격을 염두에 둔 북한당국의 내부적 사고를 반영하며 설령 선의로 해석하여 방어를 목적으로 취해진 조치로 할지라도 필요시 선제공격을 가능케 하는 유력한 수단이 된다.(p.23).

빅터 차에 의하면 1990년대에 발생한 모든 북한의 도발사태는 이러한 관점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혹자는 북한의 행동방식이 비합리적이며 예측불가능 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빅터 차에 의하면 그것들은 불리한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

취해진 계산된 행동이며 직접적인 계기를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 대체적으로 볼 때, 그것들은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의 직접적인 협상을 원하거나 보다 많은 경제원조 및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한편 미국과 한국정부는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한반도에서 감지된 일련의 위기에 현명하게 대처하여 북한이 경거망동할 수 있는 계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데 성공하였다. 가령 부시 행정부는 한국으로부터 핵무기를 철수하고 팀스피리트 훈련을 취소함으로써, 노태우 정부는 북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운용함으로써 북한에 의한 절망적인 선제공격 가능성을 무산시킬 수 있었다. 1999년 페리 역시 경제원조와 정치적 관계 정상화를 통해서 북한의 도발행위를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몇 년 동안 햇볕정책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던 북한은 그것의 약효가 떨어지기 시작하자 다시 모험을 시도하고 있다. 북한 경비정이 남방한계선을 침범하고, 북한 함정이 일본 해안경비정과 총격전을 벌이며, 북한군이 비무장지대에서 한국군 초소에 총격을 가하고, 일본해에서 북한의 미그기가 미국 정찰기를 교란하며, 예멘에 대해서 스커드(SCUD) 미사일을 판매하고, 신경가스 원료를 수입하였다. 문제는 점차 도발의 강도가 높아가고 있다는 사실인데 북한은 장차 국지적인 전쟁을 감행할 수도 있다. 빅터 차는 2002년의 핵사태가 새로운 위기의 본질을 보여주는 시금석이며 이제 미국 정부는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북한의 도발에 임해야 할 때라고 본다.

Ⅲ. 공세적 포용정책(Hawk Engagement)의 제안

빅터 차에 의하면 냉전 당시에는 한반도에서 봉쇄정책이 유효하였으나 현시점에서는 북한의 도발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기 때문에 대화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의 전술에 일방적으로 이끌려 다닌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방치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분명히 선을 긋는 조건부 포용정책이 요청된다. 조건부 포용정책으로서 공세적 포용정책은 유화정책의 한계를 설정하고 상대방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일련의 공격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정책이다.

첫째, 공격적 포용정책은 강력한 전쟁 억제력의 존재를 배경으로만 가능하다. 따라서 주한미군 지상군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공군과 해군력의 강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변화가 북한에 의해서 미국의 한반도 철수로 오해되지 않고 군사기술의 변화에 따른 성숙한 한미동맹관계의 발전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즉 공세적 포용정책은 상대방에게 그것이 강자의 논리임을 주지시킨다. 따라서 공세적 포용정책은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방어(MD)체제의 개발과 충돌하지 않으며 오히려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둘째, 공세적 포용정책은 견고한 한미일 3자 동맹을 기반으로 한다. 3국의 상호협력은 북한에 대한 제재뿐 아니라 유인을 제공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미국은 안전보장 및 국교정상화를 약속하고, 한국과 일본은 식량과 에너지, 기타 사회간접자본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역할분담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 한미 양국의 정책 마찰은 북한에 대한 압력의 효과를 반감시키기 때문 두 나라는 이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3자동맹은 후술하는 것처럼 중국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셋째, 공세적 포용정책이 비핵화와 평화개혁에 대한 북한의 태도변화를 유도하는데 실패할 경우 단호하게 제재조치에 착수한다. 사실 공세적 포용정책의 본질은 약속을 불이행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처벌을 가하는데 있다. 제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장 강력한 조치는 가능한 모든 수단이 소진되었음을 분명히 한 후 주변국가의 협조를 얻어 군사적, 경제적 제재를 가하고 북한체제를 파괴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대규모의 선제공격 및 보복공격을 불사하며 조기통일비용은 미래에 대한 투자로 간주된다. 북한이 미국의 강력한 포위공격에 무릎을 꿇을 경우 북한을 무장해제시키고 생존을 보장할 수도 있다. 또 다른 방식은 미국과 우방국이 군사적 봉쇄조치를 강화하여 북한으로부터의 무기와 물자의 유입과 반출을 통제하며, 워싱턴, 서울, 동경 당국이 북한 난민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서도 경제적 보상을 통해서 동일한 조치를 권유한다.(p.98) 이 경우에도 군사적 조치가 수반되는데 그것은 평양을 조준하는 스마트 폭탄과 장거리 정밀폭격 배치를 통해 북한의 전방병력을 평양방어로 유도하는 것이다.(p.168)

빅터 차는 북한이 이러한 상황을 모면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면 먼저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말한다. 그것은 형식적인 미사일 협정이나 반테러 성

명만으로는 부족하고 북한이 진정으로 증시하는 일련의 조치를 과감하게 철회함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핵 프로그램과 미사일 개발의 포기를 비롯하여 재래식 병력의 감축, 특히 전방에 배치된 군대를 철수하는 일등이 포함된다.(p.99)

넷째,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계속된다. 물론 포괄적인 모니터링(monitoring)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빅터 차에 의하면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가 식량원조를 무기로 이용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북한도 그 책임을 모면할 수 없다고 본다. 북한은 원조물자를 군용으로 전환하고 군사장비 구입 경비로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3]. 한편 북한에 대한 식량원조는 사회통합의 관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반세기 동안 남한과 미국을 적으로 규정해온 북한의 주민들에게 미국이나 한국의 국호가 표기된 지원물자는 그들의 적대감을 완화시키고 민족적 신뢰감을 회복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다섯째, 공세적 포용정책은 궁극적으로 흡수통일을 불사하는 개념이며 통일비용의 문제에 대해서 유화론자들과 상반된 평가를 내린다. 빅터 차는 노무현 정부가 북한의 핵무장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도 북한이 붕괴할 경우 통일비용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군사력의 사용을 거부하며 사실상 북한의 핵무장을 묵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본다. 그는 한편으로 통일비용의 논리가 피상적임을 지적하고 다른 한편으로 북한 핵무장이 초래할 치명적인 결과를 강조한다. 빅터 차는 마커스 놀랑(Marcus Noland)의 분석을 인용하며 한반도의 통일은 한국경제의 성장을 지연시키겠지만 총생산량이 증대될 것이고 통일한국은 북한의 노동력을 잘 활용할 경우 오히려 발전의 기회를 맞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p.166) 반면, 북한의 핵무장은 군비경쟁에 따른 후유증뿐만 아니라 한국경제의 신인도 하락, 외국자본의 탈출과 주식시장의 붕괴 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빅터 차는 공세적 포용정책의 이점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는데 그것은 이 정책의 본질을 추가적으로 설명해준다.

첫째, 그것은 유사시 처벌을 가할 수 있는 정당화의 명분을 제공한다.(p.89) 북한에 대한 제재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가능한 모든

3) 그러나 한 연구에 의하면 북한에 대한 지원식량이 군비로 전환되었는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다. Marcus Noland, *Avoiding the Apocalypse: The Future of Two Korea* (Washington. D. 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00), p. 178.

수단이 시도되었다는 지역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과거 미국 정부가 주도했던 일방적인 대북제재안은 심지어 우방국가의 반발로 인하여 실효를 거둔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빅터 차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1994년의 기본합의가 북한의 억지에 대한 단순한 보상물이 아니며 처벌을 위한 유효한 수단이라고 말한다. 2002년 북한이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기본합의를 위반하자 미국정부는 중유 공급의 중단조치를 강력히 주장하였다. 이때 김대중 정부는 미국과 공동 보조를 취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둘째, 공세적 포용정책이 제공하는 각종 인센티브는 상황에 따라서 규제의 수단으로 반전될 수 있다.(p.90) 궁지에 몰린 상대에 대한 추가적인 경제제재는 효과적인 압력수단이 되지 못하지만 그것을 철회하여 약간의 기회를 부여한다면 후일 재차 동일한 방식을 통해서 보다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북한이 만일 포기할 수 없는 이해를 제공받는다면 함부로 현실을 파괴하지 않게 될 것이다. 1999년 북한당국이 한국관광객을 스파이 혐의로 억류했을 때 한국정부는 금강산 관광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북한은 신속하게 사태를 수습하였다. 빅터 차는 현대 투어의 사례를 언급하며 당근은 후일 채찍이 될 수 있는 법이라고 말한다.

셋째, 공세적 포용정책은 북한 지배엘리트의 내부분열을 야기하는 효과를 갖게 될 것이다.(p.92) 그것은 미국을 악마로 규정해온 북한 사회의 기존 관념을 교란시키고 포용정책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쟁을 유발할 것이다. 이러한 사태는 보수세력과 개혁세력, 당과 군부, 지도부 세대간 갈등과 분열을 촉발하고 쿠테타를 포함한 위로부터의 체제붕괴에 일조하게 될 것이다.

넷째, 조건부 포용정책은 단기적으로 북한의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밑으로부터의 혁명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p.93) 기본합의, 상호교역, 관광과 투자 등의 포용정책은 정치적 개혁을 자극하여 체제에 대한 도전세력을 양성하게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혁명이나 체제의 불안정은 최악의 경제상태가 아니라 상황이 호전되기 시작하였을 때 발생한다. 이것은 모든 비자유국가가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딜레마이다.

다섯째, 매파의 강경정책이 궁극적으로 북한체제의 파괴를 목표로 한다면, 조건부 포용정책은 이러한 사태에 대비한 사전적 준비전략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냉전 당시의 봉쇄정책은 단순히 북한을 격파하는 것만을 우선적인 관심사로 삼

았고 통일 이후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숙고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조건부 포용정책은 대화와 정보교환을 통해서 북한체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제도적인 협력과 경제발전을 유도하여 흡수통일에 따른 통일 비용을 축소시킬 것이다.(p.93)

빅터 차는 부시 행정부 대북정책의 성격을 공세적 포용정책으로 파악한다.(p.87) 빅터 차에 의하면 2002년 핵위기 사태가 발생하기까지 부시 행정부 2년의 대북정책은 본질적으로 포용정책을 수용해 왔다. 악의 축 발언 등 개인적 혐오감의 표현으로 인하여 미국의 언론은 부시 행정부가 클린턴 행정부의 포용정책에서 이탈하고 있다고 논평하고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평가이다. 북한의 핵보유 선언 이후 미국 정부가 강경노선으로 선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포용정책의 기조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북한정권을 불신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부시행정부 하에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빅터 차는 아미티지(Armitage) 국무성 차관의 발언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즉, 그 동안 미국 정부는 엉거주춤한 상태에서 북한의 일방적인 도전에 수동적으로 대처해왔다. 그리고 내심 북한에 대한 처벌을 원하면서도 사태가 악화될 것을 우려하여 협상에 응해왔다. 그러나 미국은 앞으로 포용정책을 먼저 제시하고 그 한계를 분명히 함으로써 주도권을 회복하여 북한이 임의적으로 상황을 통제할 수 없게 할 예정이다.(p.88)

Ⅳ. 2002/2003년의 북핵사태 분석

2002년 10월 미국정부는 상당한 기대감 속에서 북한과의 협상에 돌입하였다. 한달 전 김정일과 고이즈미의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북미회담의 결과 역시 낙관적으로 예측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반응은 이외였다. 미국은 북한과의 평화를 원하지만 또한 깨끗한 과거와 미래를 원한다는 특사 켈리(Kelly)의 발언에 대해 제시된 증거를 날조라고 반박하던 북한은 결국 부시를 비난하고 핵무기 보유 사실을 선언하기에 이른다.

이후 사태는 계속 악화되어 미국은 아라비아해에서 미사일을 운송중이던 북한 선박을 나포하였으며,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단을 추방하고 핵확산 금지조약을 탈퇴하며 원자로를 재가동하고 미사일 실험을 재개하였다. 예의 사

태는 과거와 동일한 논쟁을 유발하였다.

유화론자들은 부시의 악의 축 발언을 다시 문제삼으며 부시정부의 강경정책에 모든 책임을 돌렸다. 그들은 북한이 요구하는 불가침조약 체결과 경제원조를 통해서 핵위기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빅터 차는 이 사태를 북한의 심각한 약속위반으로 간주하고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있는 그대로 사태를 바라보자고 말한다. 북한은 기본합의에 규정된 의무를 외면하였고, 북한의 선의를 근거로 행해진 서방국가의 모든 정책은 그들의 거짓 전술에 기만당했다. 기본합의의 특정 조문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통해서 구차한 변명을 시도하는 것은 비겁한 행동이다. 공세적 포용정책은 북한 정권의 의도 속에 어느 정도 모호성(ambiguity)이 존재함을 가정하였다. 1994년 이후 평양은 다소간 협약을 준수하였고 따라서 일련의 도발사태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포용정책을 견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2년의 핵사태는 북한정권의 모호성을 완전히 제거하였다. 그것은 사소한 약속위반이 아니라 약속의 총체적인 파기이다.(p.156) 협상은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으며 유화론을 배제해야 할 때이다. 다만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외교적 압력을 우선한 후 순차적으로 고립과 봉쇄의 전략을 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빅터 차는 유화론자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첫째, 미국이 경수로 건설의 약속을 위반했다는 비난이다. 북한은 1994년 기본합의에 서명할 당시 차기 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것이며 이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따라서 북한은 클린턴에게 협약의 준수를 개인적으로 보장하라고 요구하였다. 클린턴은 친서를 통해서 자신이 약속의 이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므로 일정표의 차질은 양해 가능한 사안이었다. 빅터 차에 의하면 약속 이행의 지체는 약속위반과 전혀 다른 문제이다.(p.151)

둘째, 부시정부의 악의 축 발언과 공격적인 행태가 금번의 사태를 촉발시켰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부시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부터 준비되었으며 1999-2002년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하에서도 중단없이 계속되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이러한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p.150)

셋째, 북한의 핵개발은 미국의 선제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자위수단이라는 주장 역시 설득력이 없다. 빅터 차에 의하면 북한은 현재 충분한 전쟁억제력과

방어력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의 화포는 57초안에 서울을 포격할 수 있고, 미사일은 10분이면 일본 본토를 강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십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다.(p.151) 인명을 중시하는 미국으로서는 10만 여명의 미군병사 및 미국시민을 포함하여 두 우방국가가 피를 흘리는 사태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이미 재래식 무기만으로도 한미양국을 충분히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넷째, 핵무기 개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단순한 협상카드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빅터 차에 의하면 이러한 주장은 일견 그럴 듯 해 보이지만 그것은 자기모순적인 논리이다. 남한의 일부 인사들이 주장하는 협상명제는 부시 행정부가 클린턴 정부의 합의에 반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은 핵무기 개발을 지렛대로 활용하여 불가침 조약을 포함한 각종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협상명제의 논리적 귀결은 북한이 핵무기를 확보하여 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미국과 협상에 임하는 것이다. 협상 수단으로서 핵무기 개발은 핵무기의 보유를 불가피하게 만든다.(p.153)

빅터 차는 이제 북한당국의 도덕적 해이를 문제삼아야 하며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사태에 대처해야 할 때라고 주장한다. 즉 공격적 포용정책의 후반부 내용을 가동시켜야 할 때이다. 첫 번째 조치는 다원적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외교적 압력에 착수하는 일이다. 2002년 가을 멕시코에서 개최된 APEC 회의에서 한미일 3국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였고, APEC 총회 역시 유사한 성명을 발표하였다. KEDO는 중유수출을 중단하였으며 IAEA는 안건을 UN안보리에 회부하여 북한의 NPT 복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유도하였다. 혹자는 미국의 비타협적 태도를 비난하였다. 그러나 빅터 차는 미국이 상대적으로 온건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북한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제공한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p.155) 따라서 이 역시 하나의 협상과정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불신의 골이 깊게 되었고 앞으로 관용의 폭은 더욱 축소될 것이다. 북한이 취해야 할 시급한 조치는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해체하고 영변 핵발전소를 원상복귀 시키는 것이다. 북한이 만일 이를 거부할 경우 뒤따르게 될 처벌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우방국들과 협력하여 북한을 군사적으로 봉쇄한 후 핵무기나 미사일 관련 부품의 반입 및 반출 용의선박을 나포한다. 그 다음에는 일본과 여타 아시아 지역에서

불법적인 마약거래를 행하고 있는 북한 기업을 수색하여 본국으로의 송금활동을 차단한다. 동시에 한미 군사전략을 재조정하고 평양에 대한 장거리 타격 능력을 강화시킨다. 미국정부는 중국을 비롯한 인근국가들에게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의 난민구호활동에 협력할 것을 촉구하며 망명자로서 자격요건을 갖춘 일정수의 북한 주민들에게 망명처를 제공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수범을 보인다.

이 경우 주변국가의 반응은 어떠할 것인가? 현재 북한에 대한 제재에 반발하는 두 국가는 중국과 한국이다. 빅터 차는 중국이 북한의 오랜 맹방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러한 조치에 협조할 것이라고 본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북한의 핵무장이 일본과 대만을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빅터 차는 중국이 과거와 달리 동아시아의 책임있는 리더로서 분별력있는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전망한다.(p.158) 한국정부 역시 노무현 정권의 좌파적인 경향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와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는 실용주의 노선을 택할 것이며 더욱 중요한 사실은 조용한 다수가 전통적인 한미관계를 존중하고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행할 것이라는 점이다.(p.159) 빅터 차는 북한이 자신에 대한 모든 제재조치를 전쟁으로 간주하는 등 초기에는 반발이 예상되지만 결국 굴복할 것이라고 본다. 지속적인 저항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지만 양보할 경우 포용정책으로의 재개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V. 한 · 미 · 일 동맹체제와 새로운 정체성의 구축

한국은 동북아에서 4강의 이해가 교차하는 전략적 요충지이다. 에버쉬타트(Nicholas Eberstadt)에 의하면 동북아에 있어서 한국의 위상은 유럽에 대한 벨기에의 그것과 같다. 따라서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동북아의 미래에 대한 평가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그러나 과거 미국은 카스라-테프트(Katsura-Taft) 조약이나 38선의 결정에서 보듯이 한국문제를 소홀히 다루어 왔다. 미국의 대한정책은 단순히 이전 정부의 정책을 답습하든지 혹은 일반적인 외교정책의 도식을 적용하는 수준이었으며 위기시가 되어야 반응을 보이곤 하였다. 빅터 차는 현재 한반도에서 전개되는 일련의 상황이 미국을 위해서나 동아시아를 위해서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21세기 진입과 더불어 새로운 자기정체성을 모색하는 한국은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이 감소하자 과거와는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다. 2002년 월드컵 축구 이후 민족주의적 정서가 강화되었으며 대미인식의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다. 한국 국민들은 한미간의 불평등한 동맹관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미국을 해방자가 아닌 오만한 우방국으로 생각하고 있다. 성조기 소각사태에서 나타났듯이 청년세대의 반미감정은 크게 우려되는 수준이다. 미국 국민 역시 한국인들이 보여주는 무례한 태도에 반감을 느끼고 있으며 한반도로부터 미군을 철수시키라는 여론이 일고 있다.

빅터 차가 동아시아를 바라보는 시각은 기본적으로 역사적인 관점에 입각해 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아시아의 맹주였으며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냉전의 정치 구조는 일종의 일탈적인 현상이라 말할 수 있다. 중국의 경제발전을 무제한 낙관할 수는 없지만 강력한 중국이 다시 한번 아시아의 패자로 부상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한국은 완고한 민족주의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한 편이며 현재 중국과의 관계증진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미사일 방어 계획에 거부감을 보였고 한국의 군사작전은 중국의 위협을 크게 의식하지 않고 있다.(p.171) 빅터 차가 예상하는 이후의 동북아 정치역학은 다음과 같다.

한반도의 통일은 주한미군의 철수를 강요하는 상황을 만들 것이다. 새로운 한국은 중국과의 유대를 강화할 것이다. 한국과 중국의 상호접근, 격앙된 한국의 민족주의와 군사능력의 제고는 일본의 안보의식을 자극할 것이다. 아시아 지역에서 유일한 미군 주둔국가가 된 일본은 여타 국가로부터 고립되어 심리적인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결국 일본은 미국의 군사식민지라는 오명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독자적인 안보체제를 모색하게 될 것이다.(p.173) 일본의 이러한 노력은 다시 중국과 한국을 자극하여 군비경쟁과 핵무기 개발 등 동아시아 지역의 긴장과 불안정을 유발할 것이다. 만일 미국이 한반도 통일 이후에도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 시급한 과제는 이러한 추세를 하루 빨리 역전시키는 일이다. 빅터 차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한미일 3국의 동맹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으로 집약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일간의 안보협력을 강화한다. 북한의 도발을 매개로 하여 성립된 한

일 양국의 안보협력은 1990년대에 와서 국방장관 회담, 수색 및 구출 훈련, 비전투원 소개작전, 군사학술 교류 등 과거 어느 때보다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그것은 이제 의례적이며 실리적인 단계를 벗어나 지속적이고 심층적인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빅터 차는 한일 양국간에 과거의 갈등이 해소되고 새로운 신뢰관계가 형성되고 있다고 본다.

둘째, 한일 안보협력의 강화를 위해 미국은 자신의 역할을 축소시킨다. 미국은 한일 양국의 관계개선을 변함없이 지지해왔다. 역사의 교훈은 미국이 한발 뒤로 물러나 방위부담의 책임을 이들 국가에게 어느 정도 전가할 때 양국의 관계가 공고해짐을 보여준다. 그러나 양국이 자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정도로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미국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불안정한 군비경쟁을 촉발하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경우 주한미군은 가급적 규모를 축소하고 화력과 기동성에 의존해야 할 것이며 용산기지를 폐쇄하는 대신 오산공군기지를 강화하고 남부해안에 새로운 해군기지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p.176) 인계철선을 제거하는 대신 주일미군의 신속한 배치가능성 등을 통해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전통적인 방어공약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한국의 국민감정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한미일의 3각동맹은 보다 뿌리깊은 철학적 정체성을 구축해야 한다. 빅터 차에 의하면 실리에만 입각한 동맹관계는 오래 지속되지 않는 법이다. 공유 가치에 입각한 진정한 파트너쉽만이 지속적인 관계를 정립할 수 있다. 19세기까지 유럽의 동맹관계는 단기적 이익을 토대로 하였기 매우 불안전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 탄생한 NATO는 단순한 집단방어 이상의 정체성을 확립함으로써 냉전의 종식에도 불구하고 건재하고 있다. 한미일의 동맹관계는 북한의 위협이라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피동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다차원적 결속을 다지게 되었고 NATO에 버금가는 미국외교의 성공사례가 되었다. 이제 3자의 관계는 공동의 위기대처라는 과거의 목표를 넘어서는 새로운 정체성을 모색해야 할 단계이다. 그것은 지역의 안정이나 국가이익의 이념을 초월하여 민주주의와 인권, 시장경제, 법의 지배, 핵확산금지, 반테러주의 등 초국가적 가치에 입각한 연대를 구축하는 일이다. 빅터 차는 서구적 가치에 대한 일부의 회의론이 존재하는 상황하에서 이러한 연대는 지구촌 사회의 훌륭한 귀감이 될 것이라

고 말한다.(p.180) 냉전이 종식된 현 시점에서 미국은 과거와 달리 전략적 이해를 뛰어넘는 진정한 파트너를 원하고 있다.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미국과 파키스탄의 전략적 제휴는 진정한 우정의 실현이라 말할 수 없으며 영속성을 장담할 수 없다. 한미일 3국이 미국과 캐나다, 미국과 영국의 관계처럼 인종과 언어, 문화유산에 입각한 유대를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21세기는 문명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추구하는 가치와 규범, 제도에 근거한 통합을 지향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넷째, 그러나 중국을 자극해서는 아니 된다. 3개국의 협력강화는 북경정부에 대해서 가능한 한 투명하고 겸손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좋다. 한국과 일본의 안보협력은 재난구호나 PKO 공동임무수행 등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불필요한 마찰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미군이 아시아 지역에 주둔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불만을 표시해 왔다. 만일 한반도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계속 유지된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그러나 공군과 해군 중심으로 구조를 전환하고 1만 명 정도의 지상병력을 서울 이남에 배치한다면 중국은 불편한 심기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수용할 것이다.(p.177)

혹자는 3국간 언어와 인종이 상이하고 특히 한일 양국사이에 뿌리깊은 역사적 반감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한 단계 발전된 3자동맹이 성사가능한가라고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빅터 차는 문명의 차이가 이들 국가의 결속에 심각한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민주적인 규범과 가치, 제도가 그것을 압도할 수 있다. 더구나 3자 동맹은 근저에 분명한 전략적 이해와 국가이익을 공유하고 있다. 빅터 차는 한일 양국의 경우 1980년대 중반 이후 정치, 경제 안보 모든 분야에서 놀라운 협력을 기록해 왔음을 강조한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수상의 정상회담은 양국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였다. 김대통령은 식민통치의 과거사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았고 일본의 평화헌법과 해외원조, 비핵정책을 예찬하였다. 오부치 수상은 한국이 이룩한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성공담을 높이 평가하고 그것이 아시아 제국가의 모델이 될 것임을 언급하였다. 같은 해 클린턴, 김대중, 미야자와의 정상회담 역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입각한 공유가치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인하였다.(p.184) 마찬가지로 부시 대통령은 아시아 국가들을 순방하면서 북한문제를 초월하는 포괄적인 유대관계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Ⅵ. 맺는 말

건전한 보수, 합리적인 보수를 자처하는 빅터 차의 논리는 대체적으로 미국적인 정조(情調)를 보여준다.

그는 포용정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북한체제의 와해에 있음을 굳이 숨기려 하지 않는다. 이는 선을 행함으로써 동시에 소기에 전략적 성과를 기대한다는 내치오스(Andrew S.Natsios)의 식량원조론과 일맥상통한다. 내치오스에 의하면 기아사태 당시 북한 주민들은 정부가 자립경제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생존을 책임지지 못하는 무기력한 존재임을 깨달았으며 주체사상의 한계를 목격하였다. 주민들 대부분은 구호식량과 물품에 표시된 미국이나 한국의 상표를 통해서 지원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었다. 그들은 사악한 적으로 간주되었던 서방세계의 원조에 당황했을 것이며 체제의 선전이 허구임을 깨닫게 되었을 것이다. 특히 중간급 당간부와 야전군 장교들은 적국이 자신들을 돕고 있다는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달받았다. 내치오스에 의하면 만일 제2의 기아사태가 발생한다면 주민들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4]. 또한 빅터 차는 흡수통일을 거부할 필요가 없으며 통일비용을 너무 두려워해서는 안된다는 대담한 주장을 개진한다. 그는 북한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도 이를 기정사실로 간주함으로써 그것을 하나의 협상카드로만 파악하고 있는 다른 견해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매우 관대한 입장을 취한다. 빅타 차에 의하면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클린턴의 그것과 별반 차이가 없으며 자신이 제안하고 있는 공세적 포용정책의 논리에 입각해 있다. 다만 일부 언론에 의해서 공격적 성향이 과장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가령 브루스 커밍스(Bruce Cumings)에 의하면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은 기본적으로 반클린턴주의 노선에 입각해 있으며 비정상적인 메시아주의적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부시행정부는 문제의 해결가능성을 외면하고 위기사태를 조장하며 기회만 있으면 선제공격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 북한이 만일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면 그것은 부시의 책임이다[5].

---

4) Andrew S. Natsios, *The Great North Korean Famine* (Washington. D. C.: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Press, 2001), pp.425-247.

5) Bruce Cumings, *North Korea: Another Country* (New York: The New Press, 2004), p.102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빅터 차의 이론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해 본다.

첫째, 그는 일본을 미국식 민주주의의의 아시아 보루로 파악한 결과,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을 전혀 거론하지 않고 있다. 빅터 차에 의하면 일본은 오히려 민주주의의 굳건한 수호자이다. 또한 한미일 3자 동맹에 대한 그의 견해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가령 셀리그 해리슨(Selig S. Harrison)에 의하면 한미일 3자 동맹에 대한 믿음은 잘못된 시나리오에 입각해 있다. 일본의 여론은 미군의 단계적 철수와 미일동맹의 완화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이러한 제안을 수용하기 어렵다. 더구나 일본은 한반도 재건의 통일비용을 떠맡을 의사가 없다. 한국 역시 일제 강점에 대한 아픈 기억 때문에 일본과의 군사적 협력을 정치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이러한 동맹을 자신에 대한 봉쇄정책으로 간주하고 크게 반발할 것이다. 해리슨에 의하면 오히려 뿌리깊은 반일감정을 공유하고 있는 한·중 양국이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군사동맹을 맺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6].

둘째, 그는 북한체제의 미래를 예측함에 있어서 근대화론적 시각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빅터 차에 의하면 북한 사회주의는 설령 개혁의 행로를 밟을지라도 동구사회주의의 전례가 보여주는 것처럼 의식의 자각을 경험한 민중의 저항에 의해서 붕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아시아 지역의 전통과 문화, 북한의 특수한 역사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이 점은 커밍스의 시각과 대조를 이룬다.

에버쉬타트(Eberstadt)는 지난 15년 동안 북한이 망할 것이라고 계속 잘못된 예측을 해왔다. 무엇이 문제인가? 그는 소련과 동구공산주의의 렌즈를 통해서만 북한을 바라보고 있다. 그는 아시아 공산주의의 반식민지 투쟁과 혁명적 민족주의의 전통, 냉전이후 북한이 취하고 있는 기민하고 실용적인 외교정책, 필사적인 생존전략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7].

---

6) Selig S. Harrison, *Korean Endgame: A Strategy for Unification and U.S. Disengagement* (Princet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2), pp.304-305. 해리슨에 의하면 냉전이 종료된 상황에서 미국의 국익에 부합되는 새로운 한반도 정책은 단계적인 미군 철수와 북한의 군비축소를 연계시킨 후 최종적으로 주변국가의 동의하에 한반도를 비핵중립지대로 선언하는 것이다.

셋째, 그는 공세적 포용정책의 결과 - 특히 일련의 제재조치를 가할 경우 예상되는 북한의 반응 - 를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다. 빅터 차는 북한이 결국 상황을 직시하고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는 지나친 속단이라고 여겨진다. 커밍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단언컨대 이 사람들은 미래에도 지금처럼 시련을 견디어낼 것이다. 미국도 그 누구도 이 체제를 붕괴시킬 수 없다. 만주의 전장터에서 형제와 부모를 잃고 굶주림에 시달리면서도 파시스트 무리와 투쟁했던 주도일 같은 사람을 생각한다면 나는 이것을 확신할 수 있다...[8]

넷째, 빅터 차의 논리에 의하면 선제공격의 가능성은 절망에 빠진 북한이 모험을 감행하는데서 비롯될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중대한 약속위반이나 도발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응징을 가할 뿐이다. 그러나 1994년 핵위기 당시 미국이 북한 핵시설에 대한 선제공격을 심각하게 고려한 바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9]. 즉 미국의 선제공격 가능성 역시 상존한다. 빅터 차는 이러한 사례를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성찰을 행하지 않고 있다.

다섯째, 북한정권의 내심을 진단하는 빅터 차의 논리에 약간의 문제가 발견된다. 그는 한곳에서 북한정권이 적화통일의 야욕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p.83), 다른 곳에서 북한은 공산혁명의 국가적 목표를 변경하였고 이제 생존만이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라고 말한다.(p.21) 다소 혼란스러운 주장이다.

사족이지만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것(p.33)이 눈에 거슬린다.

---

7) Bruce Cumings, pp.198-199

8) Bruce Cumings, p.207.

9) 1994년 5월 워싱턴에서 한반도 사태를 대통령에게 브리핑하기 위한 전군 지휘관회의가 열렸다. 군부는 전쟁이 일어날 경우 미군 사상자 숫자가 8만에서 10만, 한국군의 경우 수십만 명의 희생이 따를 것이며, 이라크전 당시보다 더 많은 전쟁경비가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같은 해 6월 클린턴 정부는 전쟁준비를 위한 제1단계 조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지미 카터 전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돌파구가 마련되었다. Bruce Cumings, *Parallax Visions: Making Sense of American-East Asian Relations at the End of the Century* (Duhram N. C.: Duke University Press, 1999), p.146.